

확 달라진 키프리스,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

- 2월 3일, 새롭게 개편된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개통 -
- 국내·외 통합검색, 반응형 웹 적용으로 쉽고 편리한 검색 환경 제공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KIPRIS)를 개편하여 2.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는 국내·외 29개국(기관)의 특허, 상표, 디자인 공보와, 국내 행정처리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검색 플랫폼이다. 키프리스는 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며, 24년 기준 연간 검색 횟수는 1억6천만회를 기록하는 등 활용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출원, 심사, 등록, 갱신 등 특허와 관련된 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 연간 검색 횟수(백만회) : ('20) 76 → ('22) 103 → ('24) 166

<국내·외 통합검색, 반응형 웹 적용 등 이용자 친화적인 기능 제공>

이번 개편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키프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집중하였다.

❶(국내·외 통합검색 적용)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 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한 번의 검색으로 국내·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은 통합·재배치하여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②(반응형 웹* 기술 적용) 이용자들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동일한 검색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장소나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UX)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

③(검색화면 개편)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순하고 깔끔한 메인 화면을 구현하였다. 불필요한 팝업창 대신 2단 검색 결과 화면을 제공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언어 전환 기능(국문 ↔ 영문)을 추가하여 내·외국인 모두 동일한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④(통계기능 강화) 검색 결과에 대한 통계 시각화 기능도 추가하였다. 표, 도표, 그래프 형태로 주요 통계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 제공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 상표와 디자인 정보까지 제공하였다.

특허청은 키프리스 개편을 기념하여 ‘키프리스 퀴즈’와 ‘키프리스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키프리스 홈페이지 알림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키프리스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 개편 화면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동영 (042-481-5134)
		담당자	사무관	최진아 (042-481-5359)
			주무관	김성준 (042-481-5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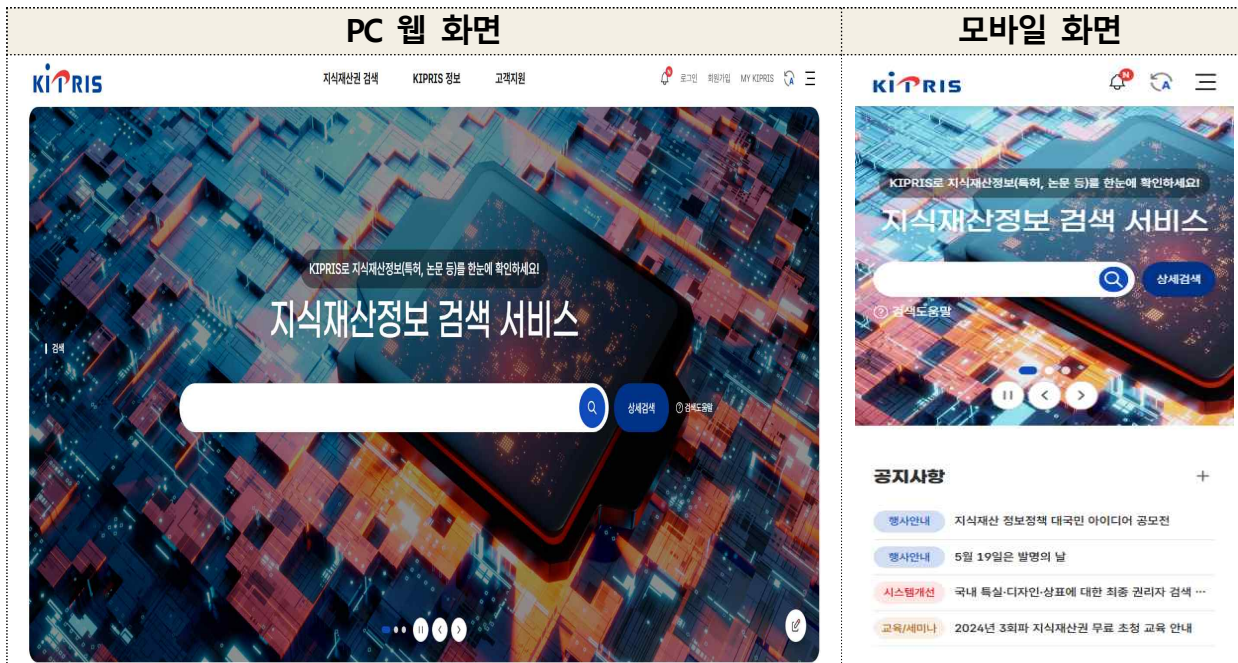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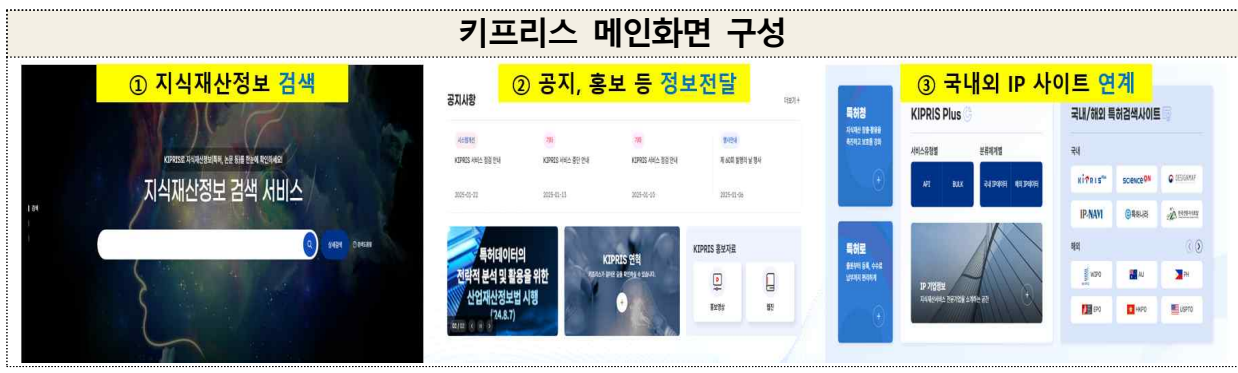
① 국내·외 통합검색 화면



② 반응형 웹



③ 키프리스 검색 및 메인화면



검색 화면 레이아웃 (2단 구성)

검색결과

상세조회

④ 통계기능

